

보·도·자·료



## 디지털 이동전화 상용 서비스 확대

한국이동통신은 3월 15일부터 서울, 과천, 광명, 고양, 성남 및 대전 지역으로 본격적인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코드 분할다중접속) 디지털 이동전화 상용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난 1월 1일 세계 최초로 인천 및 부천 지역에서 시작한 CDMA 상용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난 1월 1일 세계 최초로 인천 및 부천 지역에서 시작한 CDMA 상용 서비스를 그간 운용해본 결과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통화 품질면에서도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서울 등 수도권과 대전 지역으로 CDMA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이동전화 가입자의 5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은 통화 품질과 가입 용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대전 지역의 시스템 환경은 3개의 교환기 및 160여 개의 기지국으로 구성되며, 기존 아날로그 방식과의 연동기능, 운용 보전 시스템 및 고객 관리 시스템과의 연동 기능 등을 갖춰 CDMA 디지털 이동전화 가입자는 지역에 구애 받지 않고 전국 어디에서나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뛰어난 통화 품질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인천 및 부천 지역에서 CDMA 디지털 이동전화를 가입해 이용하고 있는 700여 가입자는 통화 품질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지난 2월 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 구조가 개편되어 이용자의 부담이 한층 경감되었는데 특히 주과수 부족으로 통화 품질에 만족하지 못했던 서울 지역의 많은 고객이 CDMA 서비스 확대 실시를

계기로 품질 좋은 CDMA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한국이동통신은 CDMA 서비스의 보급에 더욱 박차를 가해 올해 안에 수도권 주변도시 및 부산, 대구, 광주, 강원, 제주 등 전국 시·도 단위 지역까지 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동전화 이용이 CDMA 디지털 방식과 분산됨으로써 기존 아날로그 가입자의 통화 품질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한국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통화가 가능한 듀얼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며 가입 절차와 이용 요금은 기존 아날로그 서비스와 동일하다.

## 보·도·자·료



# 고객 정보 시스템(CIS) 계통

한국이동통신은 지난 1월 3일부터 고객 정보 시스템(CIS)을 개통,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통된 CIS(Customer Information System)는 급증하는 고객의 욕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초대형 IBM전산기 2식을 비롯 전국 영업장 및 대리점에 2600여 대의 단말기를 설치하고 1단계로 시스템 운용이 개시된다.

이 시스템은 대 고객 서비스 향상과 다양한 요금 체계 및 요금 체

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93년 3월부터 개발한 고객 정보 시스템으로서, 이동전화 및 무선호출 동시 가입자의 정보 통합화를 통한 고객 중심의 정보 관리, 가입자 교환기 등록 자동화 및 즉시화로 가입 증시 계통 상태를 영업장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하는 등 영업 창구에서의 'ONE-STOP Service'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5월말까지 추가로 개발·완료하게 될 2단계에서는 고객의 신

용 평가결 통해 가산점제 및 할인 혜택 등 고객 중심의 관리가 가능해지며 불법 통화 추출 및 추적을 할 수 있는 불법 복제 검색 기능을 개발, 단말기 고유번호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단말기의 A/S 의뢰에서 완료, 인도까지의 정보 관리로 고객 서비스가 대폭 향상될 예정이다.

# 이동전화 불법 복제 단속 강화

정보통신부에서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고유 번호를 불법으로 복제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통화료유출 저하 및 통신망 장애 등이 발생함에 따라 95년 10월부터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3차에 걸쳐 불법 복제 방지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그 대책을 수립했다.

그 대책으로는 ▲이동전화 교환 시스템에 개인 비밀 번호 기능을 삽입, 가입자가 단말기에서 비밀 번호를 눌러야 통화가 가능한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부선 설비 규칙에 'S/W 내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 제조·수입 업

체로 하여금 불법 복제 방지 S/W를 내장한 단말기를 개발하도록 하여, 96년 3월 1일부터 시행토록 조치(단, 본인 사용을 위해 외국에서 가져오는 제품에는 적용이 곤란하나 휴대 반입을 지양하도록 제도 조치)하였다.

▲불법 복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로 다른 기지국에서 2개 이상의 단말기가 동시에 통화하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불법 복제 단말기 검색 S/W(한국이동통신 정보기술 연구원에서 개발중)를 개발 완료하여 96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중앙 전파 관리소 및 부선국 관리 사업단을 통해 불법 복제 사용

에 대한 단속 활동을 연중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전화 불법 복제는 법률상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진과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규제에 의한 단속이나 처벌보다는 무엇보다도 전파가 우리 모두의 귀중한 자원이라는 점을 사용자 모두가 인식하여 이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사용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